

캐릭터 사진앱·페어... 이통사, '키즈 콘텐츠'로童心 공략

SKT, 고학년 전용 주니어 폰 출시
KT, 캐릭터 사진 촬영 전용앱 탑재
LGU+, 자녀 이동경로 확인 기능

5월 가정의 달에 어린이를 위한 키즈폰이나 콘텐츠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키즈폰의 경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접목하기도 하고, 인공지능(AI) 등 특화 기술을 더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신비아파트' 시리즈 캐릭터를 접목한 어린이 전용 스마트폰인 'KT 신비키즈폰' 구매 이용자를 위한 경품 이벤트를 14일까지 진행하며 어린이 고객 모시기에 나선다.

KT 신비 키즈폰에는 키즈 전용 콘텐츠인 '올레 tv 키즈랜드', 신비아파트 공식 앱, 신비아파트 캐릭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용 사진 앱 '롤키(lolki)', 'KT 안심박스' 앱이 기본으로 탑재됐다.

특히 KT안심박스의 열공모드는 통화, 문자, 카메라, 갤러리 기본 앱 4종 외 부모가 선택하는 모든 앱의 이용을



모델들이 '올레 tv 키즈랜드 캐릭터 페어'를 소개하고 있다. /KT

제한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또한 올 초 초등학교 전용 스마트폰 'U+카카오톡프렌즈4'를 단독으로 선보였다. 안심지역 설정, 자녀위치 확인 등 기존 위치조회 서비스가 강화돼 자녀 이동 감지 시 보호자 알림과 자녀 이동경로 확인 기능을 더했다.

SK텔레콤도 초등학교 고학년 전용 LTE 주니어폰 '갤럭시 A21s ZEM'을 출시하기도 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초등고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가장 크게 증가해 2018년 기준 80%대에 진입했다. 스마트폰 이용시간도 늘었다.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의 이용시간이 가장 큰 폭의 비율인 73%로 증가해 초등저학년은 하루 평균 45분, 초등고학년은 1시간 45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스마트폰의 교육 역할도 강화돼 키즈폰 시장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키즈폰 뿐 아니라 어린이 대상 콘텐츠 경쟁도 치열하다.



'콩순이와 친구들의 음악여행' 공연현장 모습. /LG유플러스

KT는 5월 한 달간 올레 tv 키즈랜드의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올레 tv 키즈랜드 캐릭터 페어'를 연다. 27일까지 뽀로로, 풀리, 캐리와친구들, 타요 등 10종의 캐릭터 콘텐츠 700여편을 무료 혹은 할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아울러 29일까지 기가지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오은영 박사와 함께하는 기가지니 우리아이 칭찬 이벤트'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온택트 키즈콘서트 '콩순이와 친구들의 음악여행' VOD를 U+아이들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다. 배

우들의 움직임에 여러 대의 카메라로 밀착 촬영한 영상이 애니메이션과 합쳐진다. 아울러 어린이날을 맞아 U+tv와 모바일앱으로 U+아이들나라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콩순이, 옥토넛, 엄마까투리 등 인기 캐릭터의 울동동요 콘텐츠 600여편도 무료로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집콕'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이나 IPTV 등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U+, 고성능 안테나 모듈로 전송 속도 ↑

튜닝 필요 없이 단말에 쉽게 장착
데이터 전송속도, 최대 10% 높아

LG유플러스는에이스테크놀로지와의 다양한 산업군(B2B)의 단말기에서 폭 넓게 사용 가능한 '고성능 5G 안테나 모듈'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5G 통신으로 넘어가면서 높은 데이터전송속도에 대한 요구사항이 커졌으며, 이를 위해 단말은 더 넓은 주파수대역폭을 지원하고 안테나의 개수를 늘려야 하는 등 개발난이도가 높아졌다. 5G B2B 단말은 내장형안테나를 적용 시 별도 튜닝해 장착해야 해 상당한 개발시간과 비용이 투입돼야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위해 따로 튜닝할 필요가 없고 쉽게 단말에 장착할 수 있는 '안테나 모듈'을 개발했다. 이 모듈의 핵심은 특히 출원한 광대역 안테나 소자인 '모노콘'이다.



LG유플러스 직원이 안테나 모듈을 들어보고 있다. /LG유플러스

안테나 모듈은 모노콘을 최적 배치해 개발됐으며, 기존에 출시된 안테나 대비 최대 10%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장한다. 모노콘의 특성 덕분에 이 안테나 모듈을 탑재한 단말은 별도 안테

나 성능 최적화가 필요없다. 이로써 단말 제조사는 개발비를 절감하고, 개발 과정 및 전파인증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20년만에 풀 체인지 '뉴 만 TG', 3종 공개

안정성 검증 기술 중심 업그레이드

만트릭이 20년만에 풀체인지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대거 도입했다.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첨단 기술과 뒤쳐진 국내 미래차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만트릭버스코리아는 지난 4일 수원 메세에서 뉴 MAN TG 시리즈 3종을 공개했다.

이번 풀체인지 모델은만의 기술력에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운전자 700여명 피드백을 조화해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하며 미래 트럭으로 만들어졌다.

상용차는 주행 시간이 길뿐 아니라 내구성이 중요해서 현존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을 엄선해 도입한다. 때문에 상용차에 적용된 기술은 이미 검증됐다는 의미, 혹은 후후 승용차

에 도입되는 사례도 많다.

뉴 만 TG도 이미 도입된 기술 중 안정성을 검증받은 기술을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대표적인 게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ADAS)이다. 뉴 만 TG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과 차선 복귀 지원(LRA)이 탑재됐다. 자율주행단계로 보면 1.5단계 수준으로 3단계가 상용화 단계인 승용차 시장에 비하면 다소 뒤떨어지지만, 여전히 ADAS의 안전성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가장 최적화된 ADAS로 평가된다.

만트릭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질문에, 지속 개발 중이긴 하지만 도입은 아직 한참 이르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재용 기자 juk@

중기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3곳 선정

안정적 근무환경 제공

제주도, 충청남도, 충남 태안군이 '2021년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은 창업교육, 현장실습 시설, 창업 보육공간 구축을 지원해 발달장애인과 해당 가족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구축비 11억원과 5년간 운영비 7억5000만원(연간 1억5000만원) 등 총 18억5000만원을 지원

한다.

첫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엔 경북 안동시와 광주 광산구가 선정된 바 있다.

올해 2차 대상지로 뽑힌 제주도는 제주시 아라일동 2068㎡ 부지에 기술 습득이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표고버섯 스마트 팜을 구축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나라장터, 농협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부지 인근에 건립 중인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완공되면 복지관의 체육관, 보건실, 부모자조모임실, 식당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4가지 색 선봬

코웨이가아이콘 정수기 인기에 힘입어 주방 인테리어에 맞춰 컬러 선택이 가능한 글램 시리즈의 4가지 색상을 새롭게 선보였다.

5일 코웨이에 따르면 아이콘 정수기에 새롭게 적용한 색상은 감각적인 포인트 컬러의 ▲브론즈 핑크 ▲민트 그린 ▲미네랄 블루 ▲미드나잇 네이비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색상은 최근 인테리어 가전 트렌드와 밀레니얼 세대의 선호도를 반영해 선정했다.

/김승호 기자

교원그룹, 사내벤처 육성... 최종팀에 2억

창업 실패해도 회사 복귀 보장

교원그룹이 사내벤처를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최종 선발팀에게는 최소 2억원의 사업지원금과 사무공간 등을 제공한다. 독립법인 분사 기회를 주되 분사한 뒤 창업에 실패해도 회사 복귀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교원그룹은 임직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사내벤처 프로그램 '딥체인지 아이디어 프라이즈'를 통해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임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도전하는 조직문화를 확대하는 동시에 회사와 임

직원이 함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그룹의 사업영역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사내벤처 프로그램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6월2일까지 '딥체인지 아이디어 프라이즈 1기 공모전'을 열고 첫 주자를 선발한다.

전 임직원이 대상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사업을 비롯해 ▲1인 및 시니어 등 가구변화 ▲콘텐츠 및 플랫폼 비즈니스 ▲이커머스 등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김승호 기자